마을활동 정의·활동가 인정 기준 논의

광주시, 민관정책워크숍 개최
마을공동체 정책 방향·위상 강연
자치역량 높이고 광주공동체 구축

마을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시·구 공무원, 지원조직원 등 30여 명이 지난 26일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마을활동에 대한 정의 및 인정기준 논의를 위한 민관정책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가 마을 활동에 대한 정의와 마을활동가 인정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마을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시·구 공무원, 중간 지원조직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활동에 대한 정의 및 인정기준 논의를 위한 민관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이웃 간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을활동에 대한 정의와 마을활동가 활동인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마련됐다.

워크숍은 ▲갈등관리 및 소진예방을 위한 마음돌봄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정책방향과 활동가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강연 ▲'활동가가 생각하는 마을활동과 활동가의 정의' 발표 ▲마을활동 인정기준에 대한 공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 더이음 공동대표는 이날 '마을공동체 정책방향과 활동가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주제 강연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를 주민자치 기반으로 마을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전문 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동체적 관계망을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마을활동 인정과 관련한 공론에서는 마을활동가의 경력인정 시스템과 활동비 인정 필요성, 계속적인 연구와 논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최선영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마을활동가에 대한 정의와 인정기준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의 시스템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자치 역량을 높여 빛나는 광주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청렴·공정 조직문화 '청바지데이' 운영

3~5일 28개 기관 참여…부패신고 모의훈련·청렴골든벨 등

광주시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청렴주간 '청바지데이(Day)'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바지데이(Day)'는 지난 6월 23일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의 기관장이 참여한 광주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공공부문 종합청렴도 동반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과제로 선정됐다.

'청바지'는 '청렴은 바로 지금부터! 청렴하고 바르고 지혜롭게!'를 줄인 말이다. '청바지데이(DAY)' 기간동안 28개 참여기관들은 직원 간 소통을 통해 부당한 지시, 언어폭력, 사생활 침해, 따돌림, 차별대우 등을 퇴출하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청바지를 자율적으로 입고 출근한다.

또 청렴주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모의신고 훈련을 하고,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캠페인도 병행한다.

4일에는 시청 구내식당에서 시장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자를 응원하는 청렴다짐 캠페인 '청렴 韓(광주) 잔 하세요' 행사도 진행한다. 5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 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지식을 서바이벌 방식으로 겨루는 반부패·청렴퀴즈대회 '도전! 스마트 청렴골든벨'도 개최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청바지데이(DAY)'를 계기로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3~28일 배달음식점 사전 위생점검 실시

광주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배달음식점 3차 합동점검에 앞서 3일부터 28일까지 배달음식점에 대한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개반 29명이 참여해 분식, 냉면, 회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8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식품·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식품 등 보관기준 준수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세균오염도조사(ATP) 기기를 활용해 종사자 손과 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전후 세균 수치를 비교해 손 씻기와 조리기구 세척·소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가 측정지를 활용해 기름의 산패오염도를 측정, 영업자들에게 올바른 튀김용 유지 사용과 교체시기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위생관리 미흡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AI 유니콘 꿈꾸는 예비창업자들, 경쟁의 무대서 실력 뽐내다

10팀 선정 시제품 제작비 지원
예비창업팀 2곳 투자협약 체결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디지털 챌린지: AI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 결선에서 AI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가 AI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디지털 챌린지: AI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주관한 'AI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에는 48개 팀이 참가해 예선, 본선, 결선을 거쳐 최종 10개 팀이 선정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광주시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등을 수상했다.

최종 선정된 10개 팀에는 창업시 AI시제품 서비스 제작 지원비를 25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AI 시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해소 컨설팅, 창업캠프 입주 연계, 데이터센터 및 실증 장비 이용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대회에선 감정인식 기반 스마트도시 연계형 AI 시니어 건강관리 모니터링 서비스를 선보인 참가팀 '㈜정션메드'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제로샷(Zero-shot) 음성 합성 서비스를 선보인 '글로소리'와 AI 딥러닝 기반 방사선 종양치료 솔루션을 선보인 '보모어사이언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선 참가팀의 AI 사업 아이템에 대한 수요기업과 창업투자회사의 멘토링과 컨설팅 등도 이뤄졌으며, 예비창업자들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모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선 '글로소리'와 액셀러레이터 '㈜아이젠', 참가팀 '빅픽처'와 투자사 '와이앤아처㈜'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으며, 참가팀 '에이드올'은 장애인 관련 아이템 개발과 테스트를 위해 '광주시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예비창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광주를 중심으로 한 AI 생태계의 확대와 융합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제7기 예비(Pre)-명품강소기업 13곳 모집

광주시는 "제7기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 참가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와 사업장이 광주에 있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체 가운데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율 3% 이상인 기업이다.

제5기 예비(Pre)-명품강소기업(2021년 10월~2023년 9월) 종료를 앞둔 기간연장 기업을 포함해 총 13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류심사와 발표·현장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제7기 예비(pre)-명품강소기업은 경영진단·맞춤형 기술사업화·자금우대 등 기업 성장목표와 수준에 따라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기업성장사다리 중 다음 단계인 명품강소기업으로 성장을 돕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지원하는 지역혁신선도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마철 도로파임 안전사고 예방 특별 순찰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도로파임(포트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동순찰 보수반 3개조와 야간 응급보수반을 매일 24시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기동순찰 보수반과 야간 응급보수반은 빛고을대로·무진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등 도로 폭원이 20m 이상(4차로 이상)인 378개 노선, 연장 597㎞ 구간을 수시로 순찰한다. 경찰청·자치구와 협조해 도로파임, 물고임 등 도로이용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도로파임 등 신고는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062-613-6796, 6797), 빛고을콜센터(120) 등으로 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마철에는 반드시 운행속도 감속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며 "도로파임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